

위협사회화 미디어의 역할

글 | 박성철_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강사 sc0314@freechal.com

신문사나 방송국은 뉴스나 정보 또는 오락을 파는 기업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다루기는 한다. 실제로 우리는 신문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전달받고 텔레비전의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언론기업의 수익을 창출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신문의 구독료는 생산원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 종이 값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지상파 방송은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다. KBS1 채널에 대해 부과되는 한달 2천500원의 수신료만 내면 된다. 다시 말해, 뉴스를 전달하거나 오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 파는 언론의 특성상 선정성은 필연적

언론기업들의 주된 수입원은 광고수입이다. 기업이나 정부, 단체 등의 광고주들에게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신문 지면과 방송 시간을 판매한다. 예컨대, 신문 1면 하단의 인쇄광고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이사이의 방송광고를 생각하면 된다. 그 광고수입이 언론사 전체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지면과 시간을 판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같은 크기의 신문 지면, 같은 길이의 방송 시간에 각기 다른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문에 따라, 지면의 위치에 따라 광고 가격에 큰 차이가 난다. 평일 새벽 1시의 20초짜리 광고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직전의 광고단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얼마나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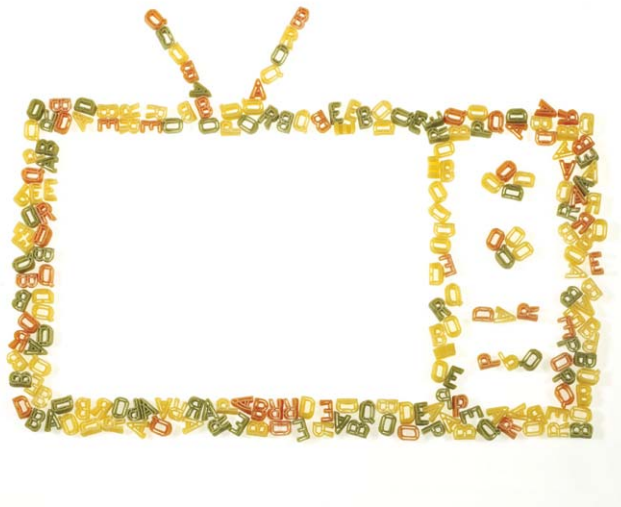
사람이 그 신문과 방송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살펴보는 지면일수록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 프로그램일수록, 곧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광고단가가 비싸다.

즉, 자본주의 체제 하의 언론기업들은 뉴스나 정보, 오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파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기업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그런 탓에 간혹 지적되는 신문이나 방송의 선정성 문제는 필연적인 현상인지도 모른다.

주목하는 사람들의 '질'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같은 수의 사람들이라면 가급적 돈이 많은, 그래서 광고하는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좋을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숫자도 적고 구매력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다.

노인만 남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유아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에, 외제자동차의 시승기나 와인에 대한 기획기사, 펀드투자에 대한 상세한 해설기사가 늘어나는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다. 당연히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마이너리티를 향한 신문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의 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쯤이면 오늘 저녁 뉴스가 배드뉴스보다는 굿뉴스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음을 깨닫게 된다. 언론은 열 건의 미담보



다는 한 건의 사건·사고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과 사고, 다가올 위험과 위기에 대한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유인하는 데 너무나 좋은 소재인 것이다.

그래서 강도·살인사건, 화재와 교통사고, 기업의 자금난과 부도설,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온갖 나쁜 소식들이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게 된다. 이러한 뉴스들은 다양한 위험을 '공지'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또한, 사회 구석구석에 잠복해 있는 위험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비하도록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칫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보도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 폐해는 크게 확산된다. 그 위험이 지나치게 크게 평가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 반면, 위험을 과소평가할 경우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어 위험에 대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위험 평가·판단·소통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

결국 위험의 정도와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평가가 과학기술에 의해 가능하다고 여긴다. 의사는 환자의 병이 나올 수 있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하고, 기상학자는 태풍의 경로와 강수량을 정확히 맞힐 것이며, 수의학자는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인 인간에게 어떻게 전염되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 기대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은 어느 영역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 충분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험적 자료와 연구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분석되

고 이해된 위험이 있는가 하면, 아직 원인조차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위험도 있다.

여러튼 위험에 대처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과학기술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과학기술인들이 언론과 일반인들에게 위험을 잘 알리고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위험이 크게 과장되거나 지극히 부분적인 언급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아예 언론과의 접촉을 애써 피하는 경우도 많다.

처음엔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잘 전달하기만 하면 언론과 시민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학자들도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언론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거나 일반인들이 위험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인들은 과학자들처럼 치사율이나 발생가능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적 판단만으로 위험을 평가하지 않는다. 예컨대, 매일같이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뉴스로 들으면서도 오늘 자동차를 몰고 나간다. 반면, 직접 방사능 노출로 인한 사망사고가 국내에서는 없었음에도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불안감은 극심하다. 경우에 따라 크지 않은 위험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상당한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위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 따라 '실제'와는 다른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위험을 판단하는 데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를 오해나 무지, 착각으로 치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만을 조장하게 될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위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을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했으니 정확히 전달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 이걸 과학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아야 할 과제다. 마침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이 함께하는 융합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것 같다. 아직 초기단계인 융합연구가 시도되기에 꼭 맞는 영역이 아닐까. ⑤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과학문화이카 데미 교수부장, 국회 입법정보연구관을 지냈다.